

ISSUE BRIEFING

2020. 06. 11

Vol. 224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강진, 이동기, 김시백, 김동영, 이지훈, 이주연, 장남정

포스트 코로나19, 전라북도 대응 전략

“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자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피해 수습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중장기 전략 필요

전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였지만, 해외 상황은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내외 경제사회 시스템, 경제성장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여 새로운 일상(뉴노멀)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 비대면 언택(untact) 문화 및 산업의 확산, 공공의료의 주류화, 거리두기에 따른 공간의 재구성, 재난공동체 형성,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새로운 미지의 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공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신산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추진 또는 모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피해를 수습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1. 경제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2. 위기발생 분석 시스템 마련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소규모단위 민간소비 촉진으로 서민경제 안정화하자

1. 공생사회 기반 소비촉진 체계 구축
2.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위기대응 예산확보 체계화
3.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4. Untact 경제 도래에 따른 소비촉진 플랫폼 구축



비대면 지원강화 및 기업유지 지원으로 경제산업활동을 활성화하자

1. 지역산업 기반 구축, R&D 사업 등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회생 촉진
2. 전략적 투자 유치, 리쇼어링 기업 유치로 경제활력화 추진
3.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속화



질적 수준 향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1.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2.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3.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중심 공동체 일자리모델 구축

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움츠렸던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비-생산-고용의 단기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19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성장 중장기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성 회복을 위한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포용정책과 공공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사전예방적 삶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제 활력화', '일상성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대 전략과 핵심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경제 활력화를 위해 1)비상대책위원회 운영, 2)소규모단위 민간소비 촉진, 3)비대면 지원 강화 및 기업유지 지원, 4)질적 수준 향상 차원의 일자리 창출, 5)혁신성장 산업 선점의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일상성 회복을 위해 6)생활의 과학화, 7)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8)공공의료체계 구축의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성장으로 코로나 이후 산업변화를 선점하자

1.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농생명, 그린바이오 육성
2. 데이터 사용 증대, DNA(Data, Network, AI) 기반 조성 기회로 활용
3. 그 시작은 사회문제 연구개발(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에서
4. 한국판 뉴딜 1번지 새만금,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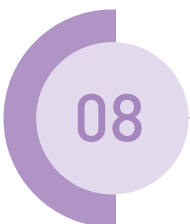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하자

1. 전북형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K-스탠다드 제시
2. 배려문화 확산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북 알리기
3. 비대면 활동을 위한 생활혁신과 실내 방역환경 모델 구축
4.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힐링을 주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 선도



완벽한 방역으로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1. 복지시설(공공 다중이용시설)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2.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3. 전북형 커뮤니케어 모델 구축
4. 정보 습득 불평등을 해소할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생활방역과 생활면역의 일상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하자

1. 감염병 등 신종 전염병 대응 전라북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2. 전북형 면역생활의 일상화 기반 생활방역체계 구축
3.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양성 및 미래형 공공의료 거점 조성
4. 의료 취약계층 돌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전략 01 경제 활력화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 활력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농림어업, 교육, 문화·예술, 관광·서비스 등 전라북도 전반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수출중심의 중견·대기업은 원료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상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최우선 대책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체계에서는 현장 진단, 대책 발굴, 집행, 환류(효과분석)까지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집단지성 활용 비상대책체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을 위한 체계적 분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1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꺼져가는 생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진단-대책 발굴-집행-환류 단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 활력화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민간·공공 현장전문가 그룹과,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 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 그룹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 발굴에 중점을 두고, 행정 그룹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위기발생 분석 시스템 마련

코로나19와 같이 광범위한 파장을 미치는 위기 이벤트 발생시, 부문별 피해를 단시일에 파악하여 적재적소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업종별 피해 정도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 및 고용위기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빅데이터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위기업종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기발생에 따른 영향력 분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 대응책 마련은 위기의 지역경제 파급경로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영향력 분석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전략 02 소비촉진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소규모단위 민간소비 촉진으로 서민경제 안정화하자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됨에 따라, 학교 개학 지연, 대규모 행사 취소 및 연기, 여행 자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민간소비의 감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에서 먼저 나타나 낮은 경력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영세상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출발점은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수요 감소이므로 수요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소비촉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노력과 더불어 언택(untact) 경제 도래에 따른 지역소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1 **공생사회 기반 소비촉진 체계 구축**

사회 한 분야가 위협 받을 시 사회전반 생태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가 공생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적극적 사회적 소비운동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는 일자리의 감소,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에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직군에서 적극적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활력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비대면 소비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소비촉진 정책(지역농협과 연계한 드라이브 스루 꾸러미 농식품 판매, 지역방송국-전라북도 협력 버라이어티쇼(variety show) 형태의 농산물 판매, SNS 이용한 도지사인증 농산물 판매 등)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소비촉진 정책(점심식사를 구내식당 보다는 외부에서 하기, 지역주유소 이용하기)등 공생사회에 기반한 소비촉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위기대응 예산확보 체계화**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소비를 촉발하는 공공부문 마중물 투자가 절실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20년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문의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극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의 예산항목 변경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축제지원금, 행사지원금, 해외벤처마킹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둘째, 예산 변경을 통해 정부 정책 이외에 추가지원 필요 분야 발굴로, 입체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정의 달성 및 민간소비를 촉진한다.

추진과제 3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포스트 코로나19는 비대면의 증가로 장거리 소비 보다는 지역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첫째, 전북은 단·중기적으로 해외 및 외래유입 관광객 보다는 지역민의 지역관광·휴양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 홍보 보다는 국내 홍보, 타지역 보다는 전북지역내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소규모단위 관광·휴양을 위한 민관산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산의 협력으로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사업,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심관광지를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마을단위에서 우리동네 여행주간 운영, 로컬인증 BNB(bed & breakfast) 운영 등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여행을 촉진할 전북투어패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전북투어패스 구매 및 기부 활성화로 지역 문화, 관광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과제 4 Untact 경제 도래에 따른 지역소비 지원 플랫폼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비대면 플랫폼 구축이 소비촉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경제 도래에 따른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제공하여 지역 소비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화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화폐의 광역화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전략 03 역동적 경제산업활동 촉진

비대면 지원 강화 및 기업유지 지원으로 경제산업활동을 활력화하자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매출 및 사업장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고 수출 중심의 중견 및 대기업은 원료수급 문제로 인한 가동 중단, 수요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수 부문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부문은 품목별,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역산업경제 회복은 유연한 예산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과 더불어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기업인들의 여행제한을 최소화하는 양자간 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1 지역산업 기반 구축, R&D 사업 등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회생 촉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고용유지 및 사업장 폐쇄 방지를 위해 고용 및 기업유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사업장이 많은 전북의 경우 정부지원이 한시가 급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저, 위기시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대응 경영자금 지원, 대출금 지원, 임대료 지원, 공과금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조기집행이 절실하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 인프라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도 최대한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전략적 투자유치, 리쇼어링 기업유치로 경제 활력화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가 예상되어 공급체계 변화에 따라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투자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입지업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 차원에서 견실한

산업구조를 위해서는 성숙기 산업 지원 뿐 아니라 IT,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등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리쇼어링 기업의 적극적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효율적 생산·공급체계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는 글로벌공급체계를 약화시켜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한 기업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속화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진흥이 필수적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해 기업들이 수출중단 위기에 처해졌다. 이를 방지하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수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기 조정(上→下), 지역 변경(中→新남방 EU 등) 등을 추진하여 공급사슬이 끊기지 않도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플랜 B로 비대면 수출마케팅체계의 상시 가동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대면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고 효율적이거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다양한 거래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Untact 마케팅 지원(인플루언서 활용 현지 마케팅, KITA가 운영하는 TradeKorea 활용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정부기관 기 구축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입국제한 등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코트라무역관의 정보 활용, 현지 네트워크 활용한 화상상담 주선, 통역비 지원정책, 현지 지사화 사업 지원 등 정부기관 활용과 더불어 수출 리스크 신속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위기 대응형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략 04 안정적 일자리 확보

질적 수준 향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전라북도의 일자리 구조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고(전국 20.8%, 전북 28.2%)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전국 54.7%, 전북 44.4%),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국 단위의 경제 위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취약한 구조이다.

앞으로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경제성장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여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주도 상생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추진과제 1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형 산업이 도래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용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유망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실직자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대면경제 도래에 따른 플랫폼 근로자 양성을 위한 IT 기술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유’ 및 ‘웰니스’ 기반 농생명산업과 플랫폼 서비스 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하여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일자리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라북도는 인구유출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자리 수급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사회계층별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일자

리 미스매칭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일자리복지 차원에서 사회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지원함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의 고용시장이 악화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여 일자리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고용보험 지원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도민 대상 생계 및 재취업 지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 대상 공공구매 우선 할당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플랫폼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프리랜서,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독립형 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추진과제 3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중심 공동체 일자리모델 구축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 때,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상생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가 지역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창업 및 보육의 내실화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등 역량 강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지역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및 지역상생형일자리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역 고용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전략 05 미래 혁신성장 산업의 고도화

혁신성장으로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를 선점하자

코로나19 장기화는 모든 산업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먼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면역, 예방, 치료 등 바이오 산업의 빅뱅이 예상되며, 비대면 서비스가 선호되면서 데이터 사용의 증대,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시장의 실질적 형성, 정부의 디지털 뉴딜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새롭게 열린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될 것이며, 새만금이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진과제 1 K바이오 시대, 포스트 농생명, 그린바이오 육성

전북은 명실상부 농생명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로 추진되는 K바이오 정책에 전북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디지털 기술과 농생명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식품 중심에서 면역, 예방, 치료 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면역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효능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면역향상용 간편식 제품 개발(HMR), 면역특화 기능식품 개발과 관련기업 집적화가 요구된다. 둘째, 전북은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치료산업 분야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천연소재의 효능을 밝히고, 한의약 분야의 치료제, 약물 재창출, 백신 등 천연 소재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의약품 시장을 선점하면서 인수 공통 질병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확보해야 한다.

추진과제 2 데이터 사용 증대, DNA(Data, Network, AI)의 기반 조성 기회로 활용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데이터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고품질의 네트워크 통신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DNA(Data, Network, AI) 분야도 전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초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맞아, 전북이 선점 가능한 데이터센터 유치와 전후방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금융기관의 데이터센터, 천연물 소재 분석이나 인수 공통 질병 관련 데이터센터,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료 원격의료 데이터센터 등 지역특성에 맞는 데이터센터 설립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의 시대를 전북이 선점하는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편입하여 전라북도의 5G 구축 완료 시점을 앞당기고, 구축된 5G망을 통하여 자율주행, 홀로그램 등 전북의 신산업 서비스를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전북은 기능성 콘텐츠를 지역특화 분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스포츠 등 다양한 기능성콘텐츠산업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추진과제 3 그 시작은 사회문제 연구개발(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에서

질병, 미세먼지, 안전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끊임 없이 생겨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체계를 주력산업과 신산업에서 안전, 보건, 질병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도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사회 문제 전북에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R&SD 연구과제 기획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북은 DNA,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인력, 관련기업이 부족하다.

추진과제 4 한국판 뉴딜 1번지 새만금,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활용

침체된 국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새만금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새만금에 계획된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의 개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새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기반도 조성되어야 한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6G망을 통한 세계적 스마트 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선도사업과 연계한 RE100 빅데이터 시범단지, 국가 거대과학 실증단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TM) 산업화 거점단지 등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새만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여 국가적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략 06 생활의 과학화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하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즉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에 근거한 ‘K방역’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 받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접목된 생활 혁신에 기반한 생활방역기술의 상용화가 일상성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의 생활화가 확산될 것이다. 실내보다는 실외를 선호하고, 집단보다는 개별적 활동이 선호될 것이다. 실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에어커튼, 비접촉 체온계, 친환경 손소독제 등 방역관련 기술의 발전과 가정간편식 로컬 밀키트, 가상현실(VR)활용 에듀테크,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의 기술 혁신이 모색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1 전북형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K-스탠다드 제시

생활방역체계에서 가장 핵심은 전염원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가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적 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라북도 방역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방역 플랫폼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 정부의 방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고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 방역시스템의 디지털전략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추진과제 2 배려문화 확산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북 알리기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려의 중요성이 그 언제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개인위생 강화,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해외를 다녀오거나 감염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자가격리를 생활화 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을 지키는 등 남을 위한 배려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방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의료진과 관련자들을 위한 응원과 이익보다는 고객의 감염예방을 생각하는 공동체

적 배려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전북의 이미지 브랜드를 확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3 비대면 활동을 위한 생활혁신과 실내 방역환경 모델 구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사회 전분야에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 근무, 회의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원격시스템을 활용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향후 데이터 양극화를 해소하고 언택트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5G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문화활동, 교육, 종교의 비대면 활동을 위한 전북형 디지털플랫폼 구축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음식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대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안전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입식테이블 교체, 띄어 앉기, 출입시 손 소독, 직원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시설과 서비스를 방역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스마트안전 리빙랩과 같은 시민참여형 생활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내는 방역소독은 물론 온도나 습도관리 등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방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시기능의 분산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4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힐링을 주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 선도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생태환경과 농촌이나 자연환경을 활용한 코로나19 힐링 관광지를 조성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환경 보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원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법소각금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숲 가꾸기 등을 통한 도시 내 맑은 공기의 유입이 필요하다. 둘째, 힐링 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여행은 단체보다는 개별여행을 선호하고 실내보다는 야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보복소비가 관광활성화로 먼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청정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유지하고 만들어야 한다.

전략 07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완벽한 방역으로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 보건·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로 경제·건강·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와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방역체계의 구축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돌봄 공백을 줄임과 동시에 비대면사회 도래에 따른 디지털포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면역력 취약자 보호를 위한 전북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추진과제 1 복지시설(공공 다중이용시설)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전북지역 복지시설 설치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병 위험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돌봄·건강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밀집시설(집단요양·거주시설)은 집단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첫째, 복지시설 유형별 감염병 긴급대응매뉴얼을 개발하고 예방-발병-대처-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업무 및 업무 담당책임자 등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건의로 인력 의무적 위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취약계층 대상 면역증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검토 등으로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로 복지시설 폐쇄 및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기본적인 끼니와 건강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협받는 사회적 소외·취약계층 대상 우선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첫째, 재난 발생 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업영역과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단계적인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과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둘째, 신종감염병 출현 대비 건강위험 취약계층 대상 지역별 돌봄생활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위험 수준이 높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 돌봄 공백 발생 시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개인용 원격모니터링 장비 보급이 요구된다. 넷째,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대상 감염병 대응 사전교육, 감염병 보건관련 기준

강화,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맞는 방역기준 마련 및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시군-마을단위 연계 및 지역단위 중심의 전복형 감염병 대응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전복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코로나19는 집단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빠르게 확산시켰고 사망률 또한 높였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돌봄-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해주는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염병 대응력을 갖춘 전복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즉 주거-돌봄-의료서비스 연계 일상생활을 하고, 살던 곳에 거주하며 요양, 가사간병, 생활지원,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의 통합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지원하는 돌봄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추진과제 4 정보 습득 불평등을 해소할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코로나19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사회를 더욱 재촉할 것이기에,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할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첫째,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보급(재활용 PC 보급,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장애인과 노인 대상 정보화교육을 확대·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시각과 청각 등의 장애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손발이음센터 운영 방안 검토와 장애유형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민생 살리기 지원정책과 지자체별, 부처별, 대상별, 거주 지역별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변화 내용을 한 곳에 모아, 신속하고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통합 포털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전략 08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생활방역과 생활면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하자

코로나19는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및 의료인력 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전라북도는 국민 안심병원 11개와 생활치료센터(14개소, 394실) 등을 운영하여,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확진자 및 경증환자의 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성공적인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전라북도는 공공의료체계의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한 생활방역 및 시민방역체계 대응이 요구된다.

추진과제 1 감염병 등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등 신종 전염병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라북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둘째, 지방의 자체적인 보건의료역량 육성과 더불어 전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방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북지역에 전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운영, 셋째,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국가기관 전환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전북형 면역생활의 일상화 기반 및 생활방역체계 구축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기저질환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면역에 대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 생활면역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1시군 1생활면역 기반 구축 사업(원헬스One Health 면역힐링 거점지역 조성)’을 추진한다. 둘째,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하여 권역별로 전라북도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일반 병원 등과 함께 생활방역 공공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생활 방역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추진과제 3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양성 및 미래형 공공의료 거점 육성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간호사 양성과 더불어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한 미래형 공공의료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양성 및 국가감염관리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2019년 기준 6개에 불과하고 주로 일반대학에서 운영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어, 국가단위의 전문대학원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공공의료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감염병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인수전염병연구소 국가기관 전환), 국가감염병연구복합단지 조성 및 기관 유치, 그리고 생산시험시설 집적화를 추진한다. 셋째,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바이오스마트 의료기기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기와 AI, 3D 프린팅, 로봇 등의 4차산업과 연계된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의료기기 융복합 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바이오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4 의료 취약계층 돌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집단감염 위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나타난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 격차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소, 의료기반이 약한 지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 취약계층 대상 마을공동체 주치의제 및 방문간호사제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권역-기초 간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 기술지원을 추진할 공공의료체계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06. 11 Vol. 224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리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